

##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절 후 열한째 주입니다. 예전 색깔은 녹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유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VBS가 교회의 유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신청서에 싸인하여 강지연 집사님 또는 서지혜 자매님께 제출해 주세요.
4. 주일 예배시에 영유아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 신청서를 데스크에 마련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비어 있는 날짜에 싸인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노한 형제님 가정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떠나는 가정 위에 함께 하길 기도해 주세요.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8/16일: Dean Condon 어린이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김배형 형제 / 설교번역: 이예슬 집사
- 8월 안내 및 봉사: 목자들 일동

### \*향후 목회 일정

- 부장회의: 9월 10일 예배후 @ 시나이룸
- 중부노회 및 목회자 세미나: 9월 11일-15일, 시카고 약속의 교회

교회세운날 2017.6.11 2023-33 8월 13일 (성령강림절 후 열한째 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9월 초에 다시 만나요.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https://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133:1-3절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김보현 집사	
찬송	—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다같이
성경봉독	— 룻기 4장 1-12절	인도자
설교	— 사랑과 충성으로 세워진 공동체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같이
축도		인도자

# 목회칼럼 /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작년 이맘 때, 그러니까 8월 3일 저희 가족은 로체스터라는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돌아보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곳에서 맺어진 많은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 형성된 관계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이들과 일 년을 보냈는데, 그 일 년 동안 많은 만남을 통해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생택쥐 베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 Petit Prince>는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귀한 책입니다. 어린 왕자는 B-612라는 소혹성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씨앗 하나가 어디서부터인지 날아와 싹을 틔우고 자라더니 마침내 꽃을 피웠지요. 평소 외로움을 많이 느끼던 어린 왕자는 이 꽃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꽃은 무척 거만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바람이 싫다고 바람막이를 해달라, 추운 건 싫으니 밤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달라 왕자를 귀찮게 했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평 또한 많은 꽃이 싫어 왕자는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죠. 여러 별을 거쳐 지구의 사막에 떨어진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면서 관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5000 송이도 넘는 장미가 피어 있는 정원에서 자기가 소혹성에 두고 온 장미가 그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 왕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왕자에게 여우는 세상의 많은 꽃들 중에 그 꽃이 왕자에게 왜 소중한 꽃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우는 ‘길들이기’라는 말을 통해 많은 꽃들 중에 하나였던 그 장미가 어떻게 자신에게 특별한 꽃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죠. 어떤 대상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 알려주죠. 여우가 말한 ‘길들이기’는 아무 의미도 없는 3인칭이었던 대상이 어떻게 2인칭이 되어 의미있는 존재로 나와 연결되게 해주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의 인생이 환하게 밝혀질거야(...)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야. 밀밭을 보아도 나는 어떤 감흥이 생기지 않지(...) 그러나 너의 머리카락 빛이 금빛이니, 네가 나를 길들여 놓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니? 난 금빛으로 빛나는 곡식을 볼 때마다 널 생각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 사이로 스쳐가는 바람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테지...”

아마 작년 1년 한 해가 저에게는 ‘길들이기’의 시간이었나 봅니다. 여러분들과 다하나교회가 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의미있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조종사로서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내린 경험이 있는 작가는 만남이 없고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그곳이 사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도시에서조차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남이 없어서일 겁니다. 만남이 없는 장소가 곧 사막인 것이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는 깊은 평안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이 제가 이리도 빛날 수 있었을까요?